

광주·전남 大해부

<제5부> 민주도시 광주

일당 독점·소통 부족…‘일상속 민주화’ 아직 멀었다

① 광주는 민주도시인가

자문위원 10명이 매긴 민주화 점수

민선 5기를 연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구현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지니고 있는 광주가 그만큼 국내·국제적으로 알려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도 밝혔다. 이 시점에서 광주일보는 과연 광주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즉 민주도시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추상적인 개념의 ‘민주’를 구체적인 현상으로 풀어가는 데 한계는 있지만,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과 각종 통계수치를 들어 이를 검증해볼 예정이다.

‘민주(民主)도시’는 말 그대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회피하지 않으며, 그것을 토대로 유지·운영되고 있는 공동체가 곧 민주도시일 것이다. 주민들은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공동의 가치를 위해 양보·배려하고, 주민들의 다양하고 다원적인 의사가 도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렴·반영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갖춰져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경우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미덕도 빼칠 수 없다.

일본제국주의와 맞서고, 군부독재정권에 항거하며 ‘광주학생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민주화’의 상징적·역사적 유산을 지니고 있는 광주는 따라서 그 어느 도시보다도 민주도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유산은 광주민이 아닌 국내와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민주화의 모델과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스런 유산이 광주라는 도시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이

견이 많다. 이번 시리즈를 자문한 지방자치와 정치를 전공하고 있는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도 민주도시로서의 광주의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과연 광주가 실제적인 민주도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자문에 나선 교수·시민단체 관계자의 ‘민주도시 광주’에 대한 평점은 100점 만점에 50점에서 85점으로 다양했다.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50점은 오수열(57)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고착된 민주당 1당 독재·높은 범죄율과 비정규직 비율·일상적인 삶에서의 비민주적인 시민의식 등을 들어 최저점을 쳤다.

그는 “광주가 민주도시임을 누구에게나 인정 받아야 하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 끄적이기 앞서기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내 각종 사안에 있어서 경상적인 논의구조를 거치기 보다 소수에 의해 결정되고,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행위에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기준(63)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자체가 어려운 일이며 막연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민주성지이며 문화도시인가 의구심이 듦다”며 “주민자치·생활자치가 지방자치의 핵심이지만 주민들은 불법주정차·쓰레기 투기 등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시민의 손으로 뽑힌 대표자들은 자리다툼에 연연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매몰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출신인 지병근(41)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민주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며 폐쇄적이고 주변에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각 65점과 70점을 매겼다.



한국의 민주화에 결정적인 계기를 던져준 ‘5·18 민주화운동’의 진원지인 광주는 민주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국립 5·18민주묘지 전경.

학생운동·5·18 가치 결맞는 선도적 역할 미흡

“민주화 퇴행 시점 광주가 대안·모델 제시해야”

■ 자문위원들이 말하는 ‘민주도시 광주’ (기내다 순)

김기곤(45) 연구교수 전남대 5·18연구소	- 민주도시로서 상징성과 역사성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임 -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채워나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음 - 투명한 의사결정, 주민의식, 남에 대한 배려와 양보 필요함	80점
김성기(64) 교수 전남대 행정학과	- 시민 참여의식, 관리 - 광장회나 제안 등에 순수한 참여리기보다는 이익을 목적으로 한 동원이 대부분임 - 침목하는 대다수가 무임승차·식비 버리기 하고 참여해야하며 행정기관도 설득하는 자세 필요	75점
노홍오(44) 광주YMCA 서구문화센터	- 민주도시임은 확실하마.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음 - 그 가치와 소신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표현되고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 민주도시는 주민과 행정기관, 전문가 등 모두가 함께 하는 것	80점
서기준(63) 교수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 실질적인 측면에서 민주성지이며 문화도시가 되지 못하고 있음 - 주민의식 부족, 기초질서 준수 및 남에 대한 배려 이해 미흡 - 대표자들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한 지지자들에 연연	65점
신원형(59) 교수 전남대 행정학과	- 독재정권에 저항한 광주는 민주도시임 - 지방자치 15년 모범시례 없음 - 제도는 갖춰져 있으나 절차적 정당성 부족함	85점
오수열(57) 교수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 민주도시 공감 하지 못함 - 일상적인 삶, 민주당 1당 독재, 높은 범죄율, 비정규직 전국 최다 등이 그 이유임	50점
오재일(58) 교수 전남대 행정학과	- 민주의 실제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 민주도시가 아님 - 다양성과 디원성,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민주성 미흡함	-
윤장현(61) 이사 이시아인권위원회	- 한국사회의 권리주인의 군부독재에 맞섰다는 역사적 소신을 지녔음 - 민주인권 운동을 왜곡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음 - 이름다운 기개, 우리민족로서를 끌어온 광주가 가장 잘 되는 등 내부동력을 있음	60점
임두택(58) 교수 전남대 행정학과	- 시민들의 참여는 과거에 비해 늘었음 - 사안에 대해 결정과정을 공개하고 알리는 것이 과제임	80점
지병근(41) 교수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 그 위상에 맞게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 다양성 인정 못하는 정치 문화, 폐쇄적인 시민의식, 주변에 대한 무관심 등이 문제임	70점

사례가 없으며, 제도는 갖춰져 있으나 절차적 정당성 미흡, 공인으로서의 시민 의식 부족 등은 문제다”고 평가했다.

임두택(58)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민들의 참여는 과거에 비해 늘었으나 광주시 등 행정기관들이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의견이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80점을 매겼다.

김기곤(45)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민주도시로서 그 내용을 채우지 못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주화가 뇌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가 그 대안과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홍오(44) 광주YMCA 서구문화센터 관장은 “광주가 민주도시임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으며, 그 가치와 소신은 분명히 지니고 있다”며 “시민의 주체성을 키우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민주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모두 민주

도시 광주에 80점의 평가를 내렸다.

김성기(64)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민들의 참여의식 부족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무임승차의식을 버리고 행정도 설득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며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아닌 50년, 100년 앞을 보고 광주만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5점을 매겼다.

유일하게 점수를 매길 수 없다고 밝힌 오재일(58)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주는 아직 민주도시라고 할 수 없으며 정치·경제·사회적 민주성이 미흡하다”며 “물론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적인 민주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시리즈 자문에 나선 10명의 의견을 종합하면, 광주는 민주도시로서의 잠재력은 가지고 있지만 ▲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 장치 미비 ▲ 시민의식의 결여 ▲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있어서의 민주성 미흡 등이 ‘민주도시 광주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h3>개업·성업 안내</h3> <p>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p>	<h3>똑배기생태탕</h3> <p>북구 양산동 롯데슈퍼에서 자이@ 가는 방향 생태탕, 알탕, 황태탕, 생대탕, 생대진골, 이구탕 단체예약손님환영 ☎(062)572-3400</p>	<h3>빛고을마트</h3> <p>북구 양산동 동남3차 APT 삼가 항상 새로운 물품 저렴하게 판매 대표 이 미 순 ☎(062)574-0084</p>	<h3>시골팥죽집</h3> <p>광산구 송정동 구.선불령장 삼가 동지죽, 팥죽 킬국수, 콩물국수 ☎(062)945-2209</p>	<h3>보문당</h3> <p>동구 궁동 중앙초 후문 앞 도자기, 고서, 고학, 민속품 등 대표 이 계 석 ☎011-734-3584</p>	<h3>마당공예방</h3> <p>북구 문흥동 도동고개 뿌리atica, 꽈리atica, 디자인전시회 수석, 좌대, 원목, 주문제작 ☎(062)263-6333</p>	
운남노래방 광산구 운남지구 목화산부인과 맞은편 2층 최고의 시설, 대형화면 최고의 음질 ☎(062)959-3539	와이와이 북구 용봉3동 야구장 옆 편안한 틈 분위기 대표 서 경 화 ☎(062)515-1311	자마스크린골프존 북구 양산동 08마주뒤 송지트리부@ 정문 앞 풀프로페셔널, 대형스코어, 헤드체인, 몬내리 주차장 프로골프: 대신디, 청와대, 청대골프장, 청대골프장 ☎(062)574-7141	한우가 서구 학정36-5(서 광주 우체국 맞은편) 한우암소, 생고기, 갈비살 전문 피로연, 연회식 원비 ☎(062)373-9900	Qook & Show 매월직영점 서구 월동 자동차 매미2단지 정문 앞 각종 휴대폰 가방 및 기타반장, 인터넷 접전화 Qook TV 가입상담센터 ☎(062)361-0000	미가도 일식 서구 차평동 사이버 빌딩2층 글비 정식 전문 ☎(062)381-4400	서부주조장 광산구 송정동 5일시장통 안 막걸리, 전통주, 제조전문 ☎(062)944-5555~7
청담회관 북구 용봉동 전대상대 뒤 꿈에 그린 정문앞 삼겹살, 오리로스, 돌솥비빔밥, 오리탕 단체손님환영 ☎(062)527-6600	도선체육관 북구 두암동 현대 1차@상가 건물 정신력 강화, 체력 강화 교육 수시관원 모집 ☎(062)269-0853	만수정장작구이 북구 양산동 신봉체육관 오리정자구, 삼겹살정자구, 등갈비, 소만념갈비 갈비탕, 햄탕, 어호백개, 단체손님환영 ☎(062)576-8282	베네치아풍암월드컵점 서구 품암동 모아스포츠타운 1층 FRESH부페, 각종 스테이크, 피자, 바비큐풀, 단체예약환영 ☎(062)675-6636	삼보컴퓨터 광산총판 광산구 수원동 모아엘가상기동 103호 잉크·토너 충전 및 판매 사무실 소형네트워크공사 ☎(062)951-8569	일식공인증개사 동구 산수동 409-29 산수 세미금고 부근 이피트, 주택, 상가, 임야 각종부동산 상담환영 대표 김 용 육 ☎010-3646-5566	다모아상사(성인용품) 서구 치평동 1141-24 성인용품 전문점 대표 이 영 준 ☎(062)373-4984
기와집 광산구 무산동 무역회관 뒤쪽 메기매문탕, 오리칠판볶음, 짬뽕특선 일품맛집 ☎(062)945-7267	광주미래병원 북구 각화동 주공APT 옆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진료전문 ☎(062)260-2917	양삼오돌뼈 북구 양산동 롯데슈퍼에서 자이@ 가는 방향 오돌뼈, 생삼겹살, 햄국탕, 햄장국, 가브리살 김치찌개, 월빙녹국탕, 캐리기 단체 예약 손님 ☎(062)573-4919	봉큰 통갈비 광산구 송정동 예술회관 앞 양갈비, 월갈비, 생갈비, 생삼겹살문점 대표 김 경 완 ☎(062)646-8500	토스잉글리쉬 서구 치평동 광주·사우나 2층 초·중·고 영어 학습전문 원장 조 기 원 ☎(062)385-3700	유화닷컴 동구 금남로2가 무등빌딩7층 어학연수, 정규유학, 비자대행 소비자, 신뢰브랜드 1위(상담환영) ☎(062)236-3900	완도바다횟집 북구 옹동동 233(양산동 회망병원 맞은편) 원도 청정해역에서 산지직송 자연산물을 취급 합니다 ☎(062)576-0078